



고사리를 알고 먹읍시다.

유익한 이 정보는
장유정 님 께서 보내주신
참으로 귀중한 정보입니다.
장유정 님 감사합니다.





오늘 TV에서 방영된 채널A,
먹거리 X-file에서
고사리에 대해 나왔는데,
얼마 전에 이진수 박사가 쓴 글이 있어 여기에 올
려본다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이나 제사상에 고사리
나물은 거의 필수로
올라온다.

나는 1년에 몇 번씩
조용한 산사를 찾아
며칠씩 쉬고 오는 편이다.

세상 살면서 묻힌 때를
그 며칠 동안 조금이라도
털어버리고 오고
싶기 때문이다.



절집에 가면 반찬은 거의
나물반찬인데 대개의
경우에는 고사리 나물이
올라온다.

절에서 스님에게
고사리나물을 주는 이유는
고사리가 남성의 정력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스님들이
성적[性的]인 고통을
덜어 주려는 배려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 몸은 개체와 전체가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체
관계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한 바 있다.

남성의 정력을
약하게 하는 고사리 나물이
정력에만 영향을 주고
건강에 대해
다른 영향은 없을 것인가?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 에는 고사리
나물을 삶 아파는
공장이 10여 곳이 있는데
년간 300톤 정도의
고사리를 수입하여

그것을 삶아서 팔고 있으며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
전에는 가마솥을 걸어놓고

고사리를 삶기 때문에
인근은 삶은 고사리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고사리를
삶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수명이 3년이라고
알려져 있다.

고사리를 삶아서 파는
사람은 3년 정도 되면 치매나
암등의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한다.



물론 고사리 공장을
운영하는 주인은
고사리 삶는 시간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그것을 삶는
사람은 한국인은 없고
대부분이
동남아 지역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라고 한다.

물론 그들은
고사리 삶는 일에 3년쯤
종사하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일을 하는 것이다.



낮선 땅에
돈을 벌기 해서 왔다가
돈도 벌지 못하고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들을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이 든다.

고사리는
비소등의 중금속 물질을
흡수하므로
그것을 삶는 과정에서
나는 냄새에 중독이 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을

흡입하게 되므로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



고사리 공장들이 있는
골목에는 고양이나 쥐들도
얼씬 거리지 않는 죽음의
골목이라고 한다.

고사리 삶은
물을 부으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 벌레 등이 다 죽으며
화장실 구더기도
다 죽으므로 예부터
살충제로 쓰였다고 한다.



고사리의 독은 삶는
과정에서 나오는 냄새가
인체에 제일 나쁘지만
삶 고난 뒤에도
잔류한 독성 때문에
고사리를 오래 먹으면
반드시 암 치매 등의 중병에
걸려 죽는다고 한다.



어떤 40대의
아주머니는 고사리를
너무 좋아하여
날마다 먹어 왔는데

40대 초반의 나이에
위암으로 사망했으며
두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고사리 반찬을 많이 먹은
큰아들은 30대 초반에
뇌종양으로,
둘째 아들은 30대
후반에 직장암으로,

하나 남은 딸마저
37세에 유방암으로 사망
한 기록이 있다.



고사리는 예부터 귀신을
부르는 음식으로 유명하며
그런 이유로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 같다.

고사리가 나는 지역은
길지(吉地)는 없고
전부 흉지(凶地)라고
알려져 있으며,

처음엔
길지 였다가도 고사리가
무성해지면 흉지로
변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길지는
소나무와 억새풀이
잘 자라는 지역인데
우리가 등산을 가보면

억새 풀이 많은 지역은
대개 양지바르고
통풍이 잘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소나무 역시
마찬 가지이다.



고사리가 잘 자라는
지역은 땅이 산성화 되어
인체도 나쁜 영향을
미치며

무덤가의 고사리는
무덤 속의 시체를 싸고
시체의 진액을 빨아
먹는다고 한다.



고사리가 무성한
지역에 사는 소 나 양 들도
치명적인 병들에
시달리기 쉬우며

고사리가 무성한 지역의
넋가에 물을 많이
먹는 동물도 대개가
병마에 시달린다고 한다.



사람에게 나쁜 물질은
동물에게도 나쁘며
동물에게 좋지 않은 물질은
사람에게도 나쁘다.

혹시 설 명절에 고사리
나물을 많이 먹음 사람들은
내년부터는 신경
쓰기 바란다.



"이진수 박사님 약력"

국립암센터 제4, 5대 원장
美 MD앤더슨
암센터 외래교수(現)
美 MD앤더슨 암센터 교수 역임
12차 세계 폐암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역임
대한 암학회 회장 역임

알고 먹읍시다.

고사리를 알고 먹읍시다!

쇼킹한 정보 받은 Mail
옴겨드립니다



우리 벗님들~!
健康조심하시고
親舊들 만나
茶 한잔 (소주 한잔) 나누시는
餘裕롭고 幸福한
나날 되세요~^



